“언제나 지금이 기회입니다”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순창 장덕사 주지 청암 스님

“항상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으로 전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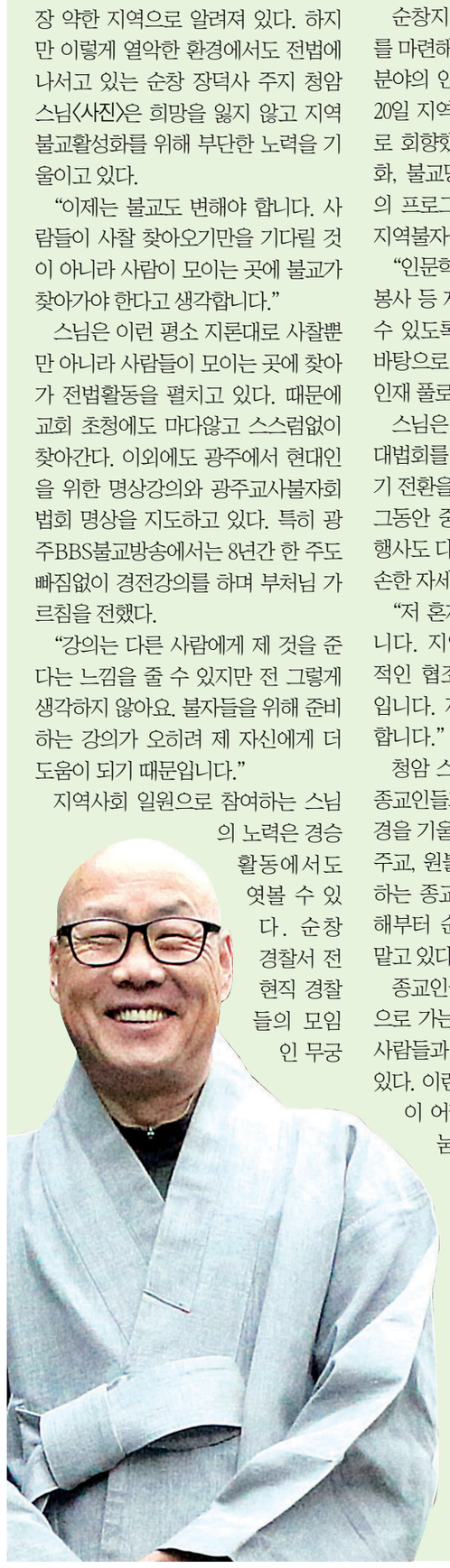
전라북도의 가장 남단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인구도 2만3천여 명에 불과한 순창은 전국에서도 불교교세가 가장 약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법에 나서고 있는 순창 장덕사 주지 청암 스님〈사진〉은 희망을 잃지 않고 지역 불교활성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불교도 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사찰 찾아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에 불교가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이런 평소 지론대로 사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 전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때문에 교회 초청에도 마다않고 스스럼없이 찾아간다. 이외에도 광주에서 현대인을 위한 명상강의와 광주교사불자회 법회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광주BBS불교방송에서는 8년간 한 주도 빠짐없이 경전강의를 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다.

“강의는 다른 사람에게 제 것을 준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자들을 위해 준비하는 강의가 오히려 제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하는 스님의 노력은 경승활동에서도 엿볼 수 있다. 순창경찰서 전현직 경찰들의 모임인 무궁화포럼서 특강하는 것은 물론 4대악 근절 사업 등 경찰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전의 경들을 위한 전법활동에도 참여해 법회를 열고, 수시로 간식을 제공하는 등 위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순창사암연합회장에 취임한 청암 스님은 보다 적극적인 불법홍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창지역에서는 올해 인문학강좌를 마련해 16주 32시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강의를 실시하고, 11월 20일 지역 불교문화유적 탐방을 끝으로 회향했다. 부처님의 생애, 불교문화, 불교명상, 불교문화유적 답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 인문학강좌는 지역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인문학강의를 수강한 이들이 염불봉사 등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불자들의 단합과 불자 인재 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스님은 지난해에 순창지역 한마음대법회를 열어 불교계의 결속과 분위기 전환을 추진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그동안 중단됐던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도 다시 봉행했다. 그러면서도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저 혼자서 추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역사찰 주지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청암 스님은 지역불교 발전 외에도 종교인들과의 화합·소통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의 종교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종교인연합회에도 동참해 지난해부터 순창종교인연합회장 소임을 맡고 있다.

종교인들의 화합이 지역사회 화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고민 덕분에 순창종교인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밑반찬 나눔사업을 분기별로 진행하고, 해마다 겨울철에 김장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김장김치는 3천포기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양이다.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단지 그 기회가 저에게 왔고 저는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에 나섰을 뿐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테지요.”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일간 끝없이 다진 지장보살 원력

고창 선운사, 11월 13일 지장천일기도 원만 회향

수행과 복지, 문화공동체의 실현을 지향하며 지난 2014년 2월 입재해 3년여간 진행된 고창 선운사 지장천일기도가 원만 회향했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11월 13일 경내 지장보궁에서 지장천일기도 회향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선운사는 그동안 천일기도기간 100일마다 입재와 회향법회를 봉행하며, 불자들의 기도동참을 독려하고 이끌어왔다. 또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을 하고 지장재일법회를 통해 기도와 수행을 병행하는 한편, 매일 4분 정근을 지도해 총 8시간의 지장정근을 이어왔다.

이날 지장천일기도 회향법회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전 대중스님들과 말사 주지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대령과 관욕을 시작으로 신중작법, 천수바라, 거불, 화청, 축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인연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영산재가 봉행됐다.

천일기도를 원만 회향한 불자들은 도솔천에서 물고기를 방생하며 부처님의 생명존중사상을 되새겼다.



11월 13일 고창 선운사서 봉행된 지장천일기도 회향법회서 스님들이 천수바라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우 스님은 지난 천일동안 기도에 동참해 식지 않는 열의를 보여준 모든 불자들을 격려했다. 스님은 “일상생활에서도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지장보살의 원력을 실천하는 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회향법회 이후에는 지장십선계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500여 불자들은 계사로 등단한 선운사 참당선원장 법만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불학승가대학원장 환성 스님으로부터 삼귀의계, 불살생·불투도·불사음·불망어·불음주 오계와 불악구·불양설·불탐욕·부진에·불사견의 오계를 더한 지장십선계를 수지했다.

법만 스님은 “지장성지 선운사에서의 수계법회를 통해 지장보살의 대원을 본받아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바람직한 불자가 돼 달라”고 말했다.

천장, 지지, 인장의 삼장지장보살 성지로 알려진 선운사는 이번 지장천일기도의 원만 회향을 계기로 지장성지로서의 면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사 공양에 고국 불교문화 ‘한가득’

길상사, 스리랑카 전통법회 봉행

스리랑카 불교에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행사가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 길상사(주지 도제)는 11월 17일 대웅전에서 스리랑카 노동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리랑카 스님들에게 음식과 가사공양을 올리는 카티나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싼타시리 스님(구미 마하붓다사), 비안난다 스님(대구 황카라마), 반야기띠 스님(충남 아산), 다미다(경기 부천) 스님 등 스리랑카 스님 13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국에서는 생소한 행사지만 스리랑카에서는 백중과 비슷한 중요한 불교명절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번 행사로 고국의 불교문화를 되새기고, 머나먼 타국에서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불교기와 함께 스리랑카무용단이 불탑과 스님들을 법회장소로 모시는 행렬의식에 이어 삼귀의, 오계, 〈자애경〉 팔리어 합송, 법문 등이 스리랑카 전통불교의식으로 진행됐다. 불교의례에 이어 스님들께 가사를 올리는 공양의식에서는 노동자들의 정성과 존경의 의미를 담은 가사에 정대의식(이마를 맞대는 의식)이 펼쳐져 타국에서 불교명절을 맞은 노동자들에게 큰 위안을 안겼다. 특히 법회에는 길상사 신도들도 동참해 스리랑카 노동자과 공양의식에 함께했다.



고국 스님들에게 공양할 가사에 예를 올리고 있는 스리랑카 노동자들.

한편, 남방불교에서는 매년 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카티나 법회를 갖는다. ‘카티나’는 음력 6월 보름~9월 보름의 여름철 우기(雨期) 안거가 끝난 뒤 대중이 스님들에게 가사를 공양하며 함께 독경을 하는 법회다. 카티나 의식은 부처님이 〈사분율〉 제43장 ‘카티나옷에 관한 건도(迦稀那衣健度)’에서 “안거를 마치고 해야 할 일이 네 가지 있으니 자자를 행해야 하고 경계(界)를 풀어야 하고, 경계를 맺어야 하고, 공덕의(功德衣)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연원을 두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 백운사, 여래선원 낙성 및 영산재 봉행

익산 백운사(회주 우성)는 11월 13일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보성 봉갑사 도륜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여래전 삼존불 이운법회 및 영산재를 봉행했다.〈사진 아래〉

성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30여 년 전 백운사는 폐사에 이를 만큼 보잘것 없는 사찰이었다”며 “30년 동안 대작불사를 이룬 우성 스님의 원력을 본받아 더욱 정진하는 불자들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우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함께하려 노력했다”며 “불자들과 함께 기도와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운법회를 마친 불자들은 큰법당 앞에 마련된 특별법석에서 대규모 영산재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 영천사, 산신봉안 점안법회

익산 영천사(주지 혜암)는 11월 13일 화엄선종 종정 무송 스님과 화엄선종 범패연구단을 비롯한 스님들과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산신봉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아래〉

법회는 그동안 산신탱화만 봉안돼 있던 산신각에 산신상을 봉안하고, 국가위기 극복과 국민의 안녕, 지역민들의 화합·발전을 기원했다.

주지 혜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나라의 큰 위기가 닥쳐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며 “오늘 법회를 계기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산신상을 봉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회 후에는 지장전에서 축원, 살풀이춤 등으로 인연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가천도재가 봉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LOTUS (연꽃香) 조연향

new

조연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 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조연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은 우리 나라에서 만든 우리향입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격 [장] 10,000원 (제조 : 국내산)
[단] 15,000원 (제조 : 국내산)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연꽃향초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